

KIA 재정비...승수쌍기 재시동



한 템포 쉬어가는 임기영, 한 번 더 가는 안치홍이다.
KIA 타이거즈가 9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를 변동했다. 투수 임기영을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포수 백용환을 등록했다.
임기영은 8일 넥센전 선발로 나와 3.2이닝 10피안타(1피홈런) 4탈삼진 5실점으로 부진했다. 선발 기싸움에서 밀린 KIA는 3-5패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임기영의 후반기 4경기 성적은 승 없이 3패가 됐다. 후반기 평균자책점은 10.00까지 치솟았다.
결국 김기태 감독은 “임기영이 한 템포 건너뛰고 다음 등판을 준비한다. 구위가 많이 떨어졌고, 가지고 있는 여유가 없어진 것 같다. 윌츠러를 수도 있다. 전반기 고생 많이 했으니 가다듬는 차원에서 말소다”고 설명했다.
임기영이 한 템포 쉬어가면서 선발진에는 임시 선발이 투입될 전망이다. 일단 8일

임기영 말소...정용운 등 임시 선발 체제로

‘십자인대 수술’ 백용환 10개월만에 복귀

임기영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준 좌완 정용운이 주말 LG와의 홈경기 중 한 경기를 책임진다. 남은 한 자리는 2군에서 선발 역할을 하는 배희찬, 이민우, 남재현 등이 후보다. 1군 불펜진에서 선발로 이동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주중 경기에 집중한 뒤 주말 선발진을 확정하겠다는 게 김 감독의 이야기다.
최근 임기영과 함께 길어진 부진으로 고민을 남긴 안치홍은 일단 5번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안치홍은 8일 4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안타를 하나 기록했지만 주자가 있던 세 타석에서는 모두 범타로 물러나면서 아쉬움을 샀다. 최근 10경기 타율이 0.18%까지 떨어졌고, 특히 득점권에서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안치홍이 배치된 5번 타수에 힘이 떨어졌다.
김 감독은 ‘믿음’으로 안치홍의 부활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감독은 “(안치홍이) 훈련하기 전에 벌써 나와서 러닝을 하고 있더라. 타순을 바꿔주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잘해줬던 것이 더 많다. 일단 오늘은 똑같이 간다. 이번 주 찬스 때 지켜보겠다.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변함없이 5번 자리에 안치홍을 배치했다.
전반기 1위 질주에 큰 기여를 해줬던 임기영과 안치홍의 후반기 부진 속에 KIA의 승수 쌍기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게 되는 두 사람의 반등세가 절실한 KIA다.
한편 이날 백용환이 부상 이후 처음 1군에 복귀했다. 백용환은 지난해 9월 15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런다운 과정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서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대에 올랐었다.
김 감독은 “기존 선수들의 휴식도 있고, 포수 타석에서 대타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백용환의 복귀에 대해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내년, 내후년에는 300홈런”

백용환 “이대형 부상 남 일 같지 않아”

덕아웃 T 특특

▲내년 내후년에는 300 = 결실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최형우다. 올 시즌 10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통산 10번째), 통산 250홈런(14번째), 1400안타(38번째), 10년 연속 100안타(8번째), 1000타점(15번째)을 채운 최형우는 8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는 통산 30번째 700사사구의 주인공도 됐다. 최형우는 1회 2사 2루에서 몸에 맞는 볼로 700사사구까지 기록했다. “공에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야구를 하다 보면 당연하지만 가끔은 기분이 좋지 않은 사(死)구도 있다”며 웃은 최형우는 “하다 보니 이렇듯 기록들이다.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300홈런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형우는 8일 경기까지 통산 258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또 4년 연속 100타점(3번째)에는 6점을 남겨두고 있다.

▲보시다시피 대단하죠 = 김기태 감독도 감탄해 하는 김선빈의 타격이다. 김 감독은 9일 김선빈의 타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발목 부상으로 쉬어갔던 김선빈은 8일 7월 30일 이후 처음 타석에 섰다. 공백에 따른 우려와 달리 김선빈은 첫 타석에서부터 좌측으로 2루타를 날린 뒤 7회에도 우측으로 공을 보내 멀티 2루타를 기록, ‘타율 1위’의 면모를 보였다. 김 감독은 “보시다시피 대단하다”고 김선빈의 타격을 이야기했다.
▲필사적이었어요 = 한승택의 필사

적인 태그였다. 한승택은 8일 3-5로 뒤진 8회 홈수비에서 3루 주자 김하성을 잡아내며 박수를 받았다. 선두타자로 나온 김하성은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와 우익수 플라이로 3루까지 향했다. 그리고 김민성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1-3 루에서 더블 스틸에 나섰다. 2루로 공을 던졌던 한승택은 다시 공을 넘겨받아 홈태그에 나섰다. 한승택은 온몸을 날려 발 빠른 김하성을 태그해 귀한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한승택은 “신인 시절에 홈에서 오자면 선배와 충돌해 무릎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자리다. 야구를 하다 보면 당연하지만 가끔은 기분이 좋지 않은 사(死)구도 있다”며 웃은 최형우는 “하다 보니 이렇듯 기록들이다.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300홈런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형우는 8일 경기까지 통산 258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또 4년 연속 100타점(3번째)에는 6점을 남겨두고 있다.

▲남 일 같지 않아요 = “(이)대형이 형 부상 장면 보셨어요?”라며 한숨을 쉬던 백용환. 남의 일 같지 않은 부상이다. 9일 1군 엔트리에 처음 등록된 백용환은 지난 가을 아찔한 부상을 입었다. 런다운 수비를 하는 도중에 주저앉았던 그는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kt 이대형도 지난 6일 SK와의 홈경기에서 도루를 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쳤고, 십자인대 파열로 당장간 그라운드를 뛸 수 없게 됐다. 백용환은 “부상을 당한 상황이 속상했고 (포수에게 중요한) 무릎이라서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다”며 “아직도 100% 느낌은 아니다. 괜히 심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다. 5월에 2군에 막 올라가서는 의욕이 너무 앞서기도 했다. 건강하게 잘하는 게 목표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현 살아났다...男프로테니스 2회전 진출



정현이 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로저스컵 대회 이틀째 단식 1회전에서 펠리시아노 로페스를 2-1로 제압하고 2회전에 진출했다. 사진은 정현이 이날 세계 랭킹 28위 로페스의 볼을 받아치는 모습. /연합뉴스

5월 佛오픈 3회전 진출 후 부상 등 이유로 부진 로저스컵서 로페스에 2-0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56위·삼성증권 후원)이 세계 랭킹 28위 펠리시아노 로페스(스페인)를 꺾고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로저스컵(총상금 466만 2300달러) 2회전에 올랐다.
정현은 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1회전에서 로페스를 2-1(6-1 4-6 7-6(7-3))로 제압했다.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로 열린 5월 프랑스오픈에서 3회전까지 진출하며 선전한 정현은 이후 부상 등의 이유로 잠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다음 그랜드슬램 대회였던 워imbledon에 출전하지 못했고 지난달 말 ATP 투어 예틀랜드 오픈을 통해 복귀했으나 1회전에서 탈락했다.
지난주 시티 오픈에서도 첫판에서 패한 정현은 6월 초 프랑스오픈 2회전 테니스 이스트먼(82위·우즈베키스탄)을 물리친 이후 이날 약 2개월 만에 승리를 거뒀다.
정현이 세계 랭킹 20위권 선수를 꺾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올해 4월 바르셀로나오픈에서 당시 21위였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를 상대로 처음으로 20위권 선수 상대 승리를 거뒀고 이후 5월 BMW오픈에서 당시 16위였던 가엘 몽피스(프랑스)를 잡았다.
또 5월 프랑스오픈에서는 28위를 기록 중이던 샘 퀘리(미국)를 물리친 바 있다.
이 대회는 또 1년에 9차례 열리는 마스터스 1000 시리즈 대회 가운데 하나로 정현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본선에서 이긴 것은 2015년 3월 마이애미 오픈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터스 1000 시리즈는 일반 투어 대회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며 메이저 대회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레벨이다.
정현은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4차례 승리한 바 있다.
정현은 이날 2015년 세계 랭킹 12위까지 올랐던 로페스에게 서브 에이스 16개를 내줬으나 3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4-2로 앞서기 시작하며 승기를 잡아 2시간 14분 접전을 결국 승리 로 장식했다.
정현의 2회전 상대는 다비드 고핀(13위·벨기에)이다. 둘은 지난해 한 차례 만나 정현이 0-2(3-6 1-6)로 졌다.
/연합뉴스



수술 손흥민 팀훈련 시작...13일 개막전 출전할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25)이 팀 훈련을 시작했다.
토트넘 구단은 9일(한국시간) SNS를 통해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팀 훈련을 소화하는 사진을 소개했다. <사진> 손흥민은 오른쪽에 붕대를 감은 채로 하얀 팀 조끼를 입고 다른 선수들과 어울려 미니 게임 등 다양한 훈련을 했다.
토트넘 구단은 “훈련장에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냈다”라며 정상적인 훈련에 합류한 소식을 알렸다.
손흥민은 팀 동료 해리 케인의 수비를 피해 공을 차는 등 선수들 간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훈련에도 참가했다.
토트넘은 오는 13일 프리미어리그 개

막전 뉴캐슬과 원정경기를 통해 2017-2018 개막전을 지르는데, 손흥민이 출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손흥민은 지난 4일 선수들 간 접촉이 없이는 훈련 그룹에 합류해 몸 상태를 끌어올렸으며, 6일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곧 그의 복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흥민은 최근 찍은 2017-2018 시즌 새 프로파일 사진에서 오른쪽 팔 수술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손흥민은 지난 6월 14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카타르와 경기에서 오른쪽이 부러져 수술을 받은 뒤 재활에 전념했다.
/연합뉴스

아선수권 예선 한국 女배구, 뉴질랜드 완파

한국 여자배구가 뉴질랜드를 완파하고 사상 첫 아시안선수권 제패를 향해 순조롭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세계랭킹 10위)은 9일 필리핀 마닐라 아르테스 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C조 예선 1차전에서 뉴질랜드(64위)를 3-0(25-21 25-14 25-12)로 눌렀다.
이번 대회 예선은 A조부터 D조까지 4개 조가 풀리그를 치러 조별 상위 2개 팀이 8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뉴질랜드, 베트남(44위), 스리랑카

(115위) 등 한 수 아래 팀과 같은 조에 편성된 대표팀은 예선에서 고루 선수를 기용해 체력안배를 하면서 통과하는 게 목표다.
한국은 계속된 국제대회 출전으로 지친 탓인지 손발이 맞지 않아 세트 예상 외로 고전했다. 그러나 2세트부터 압도적인 실력 차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은 마지막까지 김연경(상하이)을 쓰지 않고 3세트를 25-12로 마무리해 예선 첫 경기를 잡았다.
한국은 10일 스리랑카와 예선 2차전, 11일에는 베트남과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